

9

104
page

[illegible]



| 활동 내용 및 방법 |

1. 도입(40분)

(1)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참고자료 1]

[유의사항] 종업원 혹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선정하였다. 환경적 영향으로는 작물 재배 지역의 변화와 작물 가격 변동, 경제적 영향으로는 전기세, 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증가가 종업원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학습자들이 전개 활동에서 변화 예측을 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도입 단계는 그 예측 활동의 자료 제공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개에서의 변화 예측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본 활동에서 지도자가 설명을 할 때, 신문 기사 등 시사성 있는 자료들을 되도록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개(60분)

(1) 학습자 자신의 현재 가게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물품의 항목 및 그 가격, 그리고 지출되고 있는 주요 세금(전기요금, 수도요금, 유류세 등)을 적어보게 한다.

[준비물] 우리 가게 변화 활동지 [활동자료 1], 필기구, 계산기

[유의사항] 판매 품목의 변화는 특히 식자재 판매나 음식점의 경우에 주로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철물점과 같이 전혀 식자재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환경적 영향에 대한 내용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따라 자신의 가게가 겪게 될 변화에 대해 예측하여 적어보게 한다.

[유의사항] 본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도입 단계에서 기후변화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해를 마친 상태여야 하고,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도입 단계의 설명이 되도록 학습자와 긴밀히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의사항] 이 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바나나가 국내에서 널리 재배된다면 바나나 판매상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들여올 수 있으므로 더 값싸게 구입하여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의사항] 본 활동에서 변화 예측의 이유를 생각하고 적어보는 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전개 단계의 총 시간을 고려하여 (1)번 활동과의 시간 비율을 잘 조정해야 한다.

3. 마무리(20분)

(1) 각자가 자신의 예측 결과와 그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

[유의사항] 학습자들은 다양한 예측 결과를 들으면서, 똑같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라도 개개인의 상황마다 받아들여지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2) 기후변화가 학습자 자신들과도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 활동자료 |

[활동자료 1] 우리 가게 변화 예측 활동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가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1			이름 :	
<p>◎ 우리 가게에서 판매/사용하고 있는 대표 물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가게가 지출하고 있는 각종 세금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봅시다.</p>				
판매/사용 품목			세금	
품목명	구입 가격	판매 가격		
	원	원	전기 요금	원
	원	원	가스 요금	원
	원	원	수도 요금	원
	원	원	유류세	원
	원	원	보험료	원
총 이익	(판매가격-구입가격) 원		총 세금	원

우리 가게가 달라졌어요

9

108
page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가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2			이름 :	
<p>◎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따라 판매/사용 품목의 구입 및 판매 가격, 각종 세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측해봅시다.</p>				
판매/사용 품목			변화 예상 이유	
품목명	구입 가격	판매 가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총 이익	(판매가격-구입가격) 원		총 이익의 변화 예상치	원
세금		변화 예상 이유		
전기 요금	원			
가스 요금	원			
수도 요금	원			
유류세	원			
보험료	원			
총 세금	원	총 세金的 변화 예상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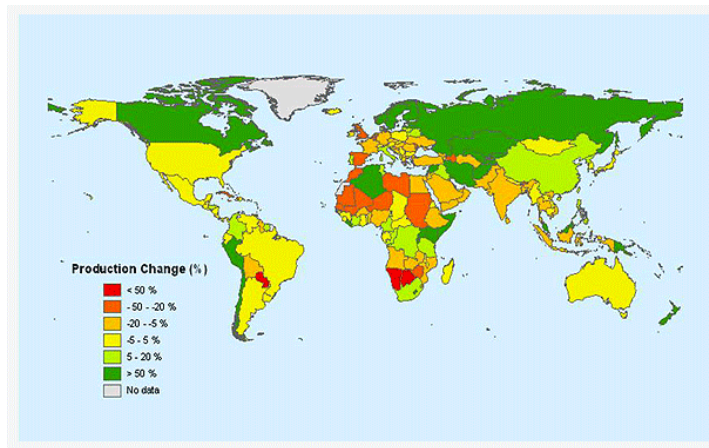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영향

◎ 기후변화의 환경적 영향 (식자재의 변화)

• 곡물, 작물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 지역인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서유럽 지역의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곡물생산량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011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 2050년에는 기온이 20세기보다 약 6.4℃ 상승하면서 곡물 재배에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예를 들어, 2010~2050년 옥수수 가격은 42~131%, 쌀은 11~78%, 밀은 17~6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보다 연평균 기온이 2℃ 높아질 경우, 안동과 대구는 더 이상 사과 재배를 할 수 없고, 대신 남부 지역에서 구아바, 아보카도, 망고, 파파야 등의 열대·아열대작물의 노지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어종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해류가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태평양의 경우, 수온이 상승해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이 번성하고, 차가운 물에 살던 어종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차가운 물에서 사는 명태, 대구 등은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어획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신 멸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 등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의 어획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세금의 변화)

[2011.05.05. 한국경제]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월 초 하반기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비해 △요금체계 개편 방안 △취약계층 지원안 △요금 인상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을 담은 '전기요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경 지경부 장관은 5일 "발전 연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 가격을 2개월 시차로 매월 적용하는 제도다.

최 장관은 또 원전 정책에 대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한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70931&sid=0101&nid=002<ype=1>

[2011.05.08. 세계일보]

8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거듭한 만큼 연료비 연동제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전기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료까지 오르면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이면서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통상 주택용 전기요금이 1% 가량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연간 0.019%포인트 상승한다. 또 산업·일반·주택용 전기요금이 1%씩 인상되면 생산자물가는 연간 0.0274%포인트 올라간다.

연료비 연동제는 특히 서민 가계를 볼모로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배경에는 이를 통해 한국전력의 엄청난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속셈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한번 인상된 전기료는 발전 연료비가 떨어지더라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전기료만이 아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국제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기름값 인하 등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물가 부담만 늘 것으로 보인다.

4개월간 동결됐던 LPG 가격은 이달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수입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조만간 공급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밀가루와 설탕가격 인상으로 과자·음료수·커피믹스 등 식품가격도 줄줄이 오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에서 4월 중 전셋값 및 개인서비스의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0.3%포인트씩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가 4.2%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제유가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508002276&subctg1=&subctg2=>



[21011.05.16 한국경제]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9.0% 올랐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 3월의 19.6%보다 낮아졌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0.7% 올라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2%, 전월 대비 4.1%에 달해 그나마 환율 하락이 수입물가 상승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86원84전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8%, 전월에 비해서는 3.3% 하락했다.

석유제품과 농림수산물, 광산품이 수입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석유제품은 경유가 40.3% 오른 것을 비롯해 액화가스(36.8%), 나프타(35.5%), 휘발유(35.3%) 등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0%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원면(89.1%) 밀(79.1%) 천연고무(53.4%)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0% 올랐다.

기사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1657971&sid=0001&nid=280&type=8>